

이긴자 일대기 [14]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 일곱째 인을 떼는 이긴자는 성경 지식이 많아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오십 평생을 나와 더불어 싸워, 지면 또 일어나 싸우고, 지면 일어나 싸우고 이렇게 수천만 번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단 끝에 희생과 인내심의 무기로 '나'라는 주체 의식을 제거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본래의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앉게 되면, 성경 전체에 인봉된 천국비밀과 구원론, 구세주론, 믿음론, 생명과일론, 선악과론, 말세론, 부활론, 순교자론 등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625전쟁 직후 부산 시내에서는 많은 전 쟁고아들이 강통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조희성 주님은 전 쟁고아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주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서 신학대학에 편 입하여 전 쟁으로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던 때였습니다.

스물세 살의 조희성 주님은 강단에 선 신학교수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신(神)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을 가르치는 학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라고 신랄하게 질문하여, 이 세상에는 인학(人學)은 있을지라도 진정한 신학(神學)은 없지 않느냐는 암시를 주어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햇수로 3년간 포로생활을 하고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1953년 그 해에 성경을 펼쳐서 읽어 내려가자마자 인봉된 성경말씀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마귀의 눈을 피해서 감춰 놓은 구원의 비밀이 속속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라 4장에 금촛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에 주를 모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 이렇게 셋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조희성 주님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12장에 강의 좌우에 각각 한

사람과 강물 중간에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일곱째 인을 떼는 주님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20대에 성경 속에 봉인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하나하나 캐내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곱째 인을 떼는 자요, 일곱째 나팔을 부는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곱 번째 천사가 태초 전부터 예정된 자라고 할지라도 이긴자의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성경 속에 인봉된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조희성 주님)'가 스물세 살 때에 성경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구원의 비결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력(靈力)이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수준의 층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성경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물론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마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알고 '성령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애걸복걸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성령으로 거듭난 자

를 말함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성령이 애깃보와 같은 마귀 욕을 찢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희성 주님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연단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하는 고행이 자루의 매질과 가죽 채찍질로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음으로써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수없이 겪었는데, 이렇게 사선(死線)을 넘는 연단을 통해서 사망의 정체와 약점을 조금씩 파악해나갔던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한 달반 동안 물과 양식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는 가운데 이복으로 끌려갈 때에는, 약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식욕 마귀를 이기는 경지에 이르렀고 또한 음란 마귀에 속하는 잠 마귀도 이기는 경지에 이르는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신이 함께하시는 영모님이 조희성 주님에게,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또한 누군지 잘 안다. 참으로 귀한 존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고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일곱째 천사(조희성 주님)'의 나이가 마흔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쨌든 일곱째 천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더라도 일단 모태에서 나와 인간 몸을 입은 순간부터는 이 세상의 죄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몸을 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은 죄인과 똑같이 병고에 시달릴 때도 있었고 자칫하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늘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는,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라는 격언이 있듯이, 하나

님의 대적인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인의 탈을 뒤집어쓰고 이 세상(마귀)가 집권하는 세상에 태어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종교가 없었고 참된 목자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인간 몸을 입은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먼저 마귀의 속성을 대표하는 사망의 정체와 약점을 파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625전쟁을 통해, 일곱째 천사 몸속에 생명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거의 실신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가하는 매질과 굶주림 그리고 불면(不眠)의 연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연단은 곧 일곱째 천사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생명의 신(하나님)과 사망의 신(마귀)의 치열한 접전이기도 하였습니.

일곱째 천사가 3년간 전쟁포로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신학대학에 편입하여 성경을 보았을 때에는, 성경말씀 전체가 환하게 이해가 되고 인봉된 비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쉽게 파악되었던 것입니다. 성경말씀의 구조(構圖)가 하나님 신의 주장함을 받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귀의 신의 주장함을 받고 기록된 말씀으로 뒤섞여 있는데, 유사 이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러한 진상을 일곱째 천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625전쟁을 통해서 사망의 경지를 넘는 연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겨냄으로써 올바르게 신분별을 하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신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의 속성을 모두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선지자가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은 다 짝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짝이 없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마귀 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된 종교가 없었고 참된 목자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마귀 말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고 어느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다는 점입니다. 성경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점일획도 바뀔 것이 없고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말이 증명하듯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온전하게 본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파가 있고 여러 교파가 날이 갈수록 쪼개지고 분파하여 난립하는데, 이를 보아도 이 세상에는 참된 종교가 한 번이라도 있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한 마귀의 말

성경에 마귀의 말을 열거하면, '사탄', '죄', '사망', '탐욕', '시기', '분노', '똥마방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은 단순히 1차원적인 수준의 마귀 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2차원적인 메시지가 쉽게 파악되었던 것입니다. 성경말씀의 구조(構圖)가 하나님 신의 주장함을 받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귀의 신의 주장함을 받고 기록된 말씀으로 뒤섞여 있는데, 유사 이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러한 진상을 일곱째 천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625전쟁을 통해서 사망의 경지를 넘는 연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겨냄으로써 올바르게 신분별을 하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16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16

나쁜 버릇을 버려라!
Let Go of Bad Habits!

완성의 이긴자 하나님이 나오시기까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한 과정이 아니었다.

The process of being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until the Victor Christ emerges was far from an easy journey.

죽을 고비를 넘고 또 넘고 참을 수 없는 경지에서도 또 참고 견디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의 이긴자 하나님이나온 것이다.

It required overcoming life-threatening trials, enduring the unbearable, and persevering through unimaginable hardships to bring forth the Victor Christ.

그런고로 여러분들도 승리제단에 그쳐 왔다갔다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Thus, simply coming and going to the Victory Altar is not enough.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은 신경질부터 버려야 된다.

Those who are quick to lose their temper must first let go of their irritability.

남의 흉을 잘보고 남을 공격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그걸 버려야 된다.

Those who habitually criticize or attack others must abandon such tendencies.

나쁜 버릇을 버려야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Only by letting go of bad habits can the ego truly die.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And only then can one be reborn through the Holy Spirit.

노력없이 안되는 것이다.

This cannot be achieved without effort.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Listening to good teachings without putting them into practice is nothing but futile labor.*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조희성 주님은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을 접했을 때에도,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관점에서 해석해야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은 현재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마귀 마음을 품고 있다는 반대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라는 주체가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고 공언스레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간단한 말씀이요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이 말씀은 성경적인 구원론에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이 말씀을 다각도로 분석해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마귀 종노릇을 하는 죄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 속에 내포된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신경질적인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반응은, 진리의 절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사유를 지배해왔던 마귀의 지식을 질그릇 부수듯 깨뜨리는 까닭에 그로 인하여 인간 속의 마귀가 박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 속에 내포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구절에는 구원론을 설명할 때 구원받는 주체에 대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리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 속에는, 현재 인간들이 마귀 마음을 품고 있다는 반대의미가 들어있는 동시에 옛날 너희 조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 적이 있었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인간의 조상은 누구일까? 만약에 인간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실존체가 있었다면, 그 실존체는 현재 마귀 마음을 품고 사는 죄인(罪人)과는 달라도 확연히 다른 성품의 소유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 최고의 조상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해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는 에덴동산이라는 하늘나라에서 살았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나 사는 곳임으로 아담과 해와의 신분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마귀 종이 되었는데 아담은 남자 사람이 되었고 해와는 여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귀 종이 되어, 원래 하나님의 마음만 품었던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이제 마귀 영이 점령하여 마귀 마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너희는 현재 마귀의 마음을 품는 나'라는 주체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일 때 비로소 구원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희성 주님은 이미 스물세 살 때, '나'라는 주체 영이 마귀라는 사실을 아는 영적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我)'라는 것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 성경말씀을 왜 '나를 항상 버려라'라고 기록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만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사가 선지자가 말

한 대로 구원론에 해당하는 여호와와 진리말씀은 다 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실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를 항상 버려라'고 기록한 이유는, '나'라는 것이 필요 없는 존재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버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나'라는 것이 누구를 염심히 믿으면 천당 가는 줄을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희성 주님은 '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아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니, 성경에서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성경에 '나'라는 것은 마귀(魔鬼)라고 표현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나'라는 것은 죄(罪)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악과(善惡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성 주님은 스물세 살에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조희성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라는 마귀를 없앨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달라고 애원하였고 동시에 자연히 나를 미워하는 생활도 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생활이 심화될수록 자존심 마귀와 욕심의 영이 약화되면서 저절로 희생하는 생활 쪽으로 '나'라는 주체의식에 변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말에 현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대에 사망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한 일곱째 천사는, 성경 속에 '죽어서 천당 간다는 사후천국(死後天國)'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한 마귀의 말을 즉각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교활한 마귀는,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낼 수 없다는 점과 죽은 자는 말을 못한다는 점을 착안하였기에, 사후천국의 허구를 아무도 밝혀줄 수 없을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망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일곱째 천사는, '사후천국'이라는 말이 마귀가 지어낸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감히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술수이며 또한 손쉽게 죽이는 마귀 작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성경에는 '죄값으로 죽고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므로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백퍼센트 마귀로 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는 지었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마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요한 일서 3장 8절).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죽은 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단에 계속